서거석 교육감, 늘봄교실서 늘봄 선생님으로 깜짝 변신

"자, 이건 무슨 모양일까?"

지난 8일 늘봄학교인 전주대정초등학교를 방문한 서거석 교육감이 신입생들에게 동화책 '딩동 거미'를 읽어주고 있다.

전주대정초 신입생 대상 동화책 읽어주기 재능기부
늘봄 프로그램 참관 후 관계자들과 지원 방안 논의
"올해 모든 초교, 늘봄학교로 운영" … 현장지원단 가동

"우아, 정말 잘 맞혔다. 하지만 이건 진짜 어려울걸. 자, 이건 무슨 모양일까?"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8일 늘봄학교인 전주대정초등학교(교장 유정복)에서 신입생들에게 동화책 '딩동 거미'를 읽어주는 늘봄 선생님으로 깜짝 변신했다.

수업을 마치고 돌봄교실로 활용되는 1학년 5반 교실을 찾아 이 학교 신입생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재능기부를 한 것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면서 "그럼 이번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모두 눈을 감아 봐. 이제 눈을 떠"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등 능숙하게 돌봄 선생님 역할을 했다.

전주대정초 늘봄학교에는 1학년 학생 112명 전원이 점핑클레이와 창의보드, 생활체육, 창의과학, 로봇항공 등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동화책 읽어주기를 마친 서 교육감은 돌봄전담교실로 이동해 아이들과 함께 가방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교장실에서 전북교육청, 전주교육지원청, 전주대정초 관계자 등과 함께 늘봄학교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도내 모든 초등학교를 늘봄학교로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1학기에 전체의 33%인 140개교를,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를 늘봄학교로 지정해 수업이 끝난 후 돌봄과 방과후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아이들이 늘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기초학력과 외국어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교 규모나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유형별 지원 체계를 구축한 전북교육청은 1학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안전하고 내실 있는 2학기 늘봄학교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주용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늘봄학교 현장지원단이 3월 한 달 동안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안착을 도울 예정이다.

서 교육감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아이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전북형 늘봄학교'에 온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 교육감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를 위한 따뜻한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안정적이고 특색있는 전북형 늘봄학교로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표준이 경제이론에 미치는 효과

전주대 성태경 교수, '표준과 산업경제' 출간

'표준과 산업경제' 책 표지

성태경 교수

전주대학교 성태경 교수(경영학과)가 '표준과 산업경제'를 출간했다고 지난 8일 전했다.

저자에 따르면 이 책에서 표준의 네트워크 효과 등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미시경제적 측면과 거시경제적 측면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태경 교수는"이 책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경제학, 경영학, 공학 등을 전공하는 대학생들, 표준경영 및 전략에 종사하는 기업 경영자들, 표준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입안자들, 그리고 표준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성 교수는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원으로 표준연구를 시작한 이후 집필을 꾸준히 진행했다.

또한 기술 경제, 기술 경영, 혁신 시스템, 산업조직 분야의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국내외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2020년에 저술한 '특허 경제학'은 세종 우수도서(학술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다.

성태경 교수는 그간 전주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론·실무 및 기업가정신을 겸비한 후학들을 양성해 왔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사립고등학교 학교장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공사립 구분 없는 공교육을 통해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 공사립 구분 없이"

서거석 교육감, 사립고 교장 50여명 대상 간담회서

"공사립 구분 없는 공교육을 통해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8일 전북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사립고등학교 학교장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교육감은 이날 △AI 기반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 △학력 신장 △전북형 늘봄학교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 학교장의 기숙사 건립 예산 지원 요청에 대해 "중기 학생배치계획 및 기숙사 입소 희망 학생수, 원거리 학생수 등을 고려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여건에 맞는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에는 "학령인구 변화 추이, 지역 여건과 교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면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호하고 학교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자기주도학습실 시설 구축 예산 지원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향후 예산 추이 등을 고려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육성' 선정… 2년 연속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2년 연속 '지역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육성사업'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구감소(위기) 지역 소재 중·고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및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우석대는 중·고교 간 협의를 통해 △교과심화학습 △동아리 활동 △방과 후 교육 △주말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는 사업비 1억 6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익산·남원·정읍 등 8개 지역 16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노준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필수기술 활용 능력에 발맞춰 우리 대학교는 지역 고교생의 역량을 키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함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캐나다 주요 대학과 국제교류 '물꼬'

전북대, 캐나다 라발 국립대학 등과 필링코리아 참여 · 대학 간 협력방안 논의

조화림 전북대학교 국제처장은 최근 한국을 찾은 캐나다 라발 국립대학과 몬트리올 폴리테크닉 공대, 쉐브룩 사립대학 등과 필링코리아 참여를 비롯한 대학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캐나다 주요 대학과 단기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인 '필링코리아' 참여를 약속하는 등 국제교류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지난 8일 전북대에 따르면 조화림 국제처장은 최근 한국을 찾은 캐나다 라발 국립대학과 몬트리올 폴리테크닉 공대, 쉐브룩 사립대학 등과 필링코리아 참여를 비롯한 대학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라발 국립대학과는 농생명대학과 인문사회대학, 상과대학 등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교환학생, 공동 컨퍼런스 개최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한 몬트리올 폴리테크닉 공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 우주항공과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소재공학, AI 빅데이터,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석·박사 공동학위제를 시행키로 했다.

쉐브룩 사립대학과도 올 상반기에 MOU를 체결해 의·치대와 약대, 간호대 등 보건의료 분야에 교류를 모색키로 했다. 이 대학은 전기공학과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컴퓨터공학 분야의 전북대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키로 하고, 최대 4개월까지 쉐브룩대학 내 연구소 및 퀘벡주 기업에서 실습과 인턴십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협력을 약속한 캐나다 3개 대학이 연합해 전북대가 해외 유학생 확충의 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단기 한국문화체험 '필링코리아'에 참여하기로 해 유학생 5천 명 유치라는 전북대의 목표 실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북대 조화림 국제처장은 "캐나다의 주요 대학들과 학문분야별로 교류를 강화해 연구중심대학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캐나다 유학생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우리의 필링코리아 프로그램에 이 대학 학생과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전북대의 한국어교육와 한국문화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유학생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생수련원, 운봉읍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봉사활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원장 강양원)은 운봉읍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23개 마을에서 안전교육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응급처치법 등 생활안전 맞춤형 실습으로 진행했다.

용산마을의 고복순 부녀회장은 "안전교육을 처음 받았다. 직접 눌러보고 실습도 해 보니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농식품 산업 발전 중심 플랫폼 역할 다 할 것"

전북대 백승우 교수,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 취임

전북대학교 백승우 교수(농생대 농경제유통학부)가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회장에 취임했다고 지난 8일 전했다. 임기는 2025년 2월까지다.

한국농식품정책학회는 1963년 한국 농업에 관한 이론과 농식품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됐다. 특히,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 및 농업인 단체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참여하면서 농식품 정책의 현안과 이슈에 대한 답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백 교수는 농경제유통학부장, 입학부처장, 농업생명과학대학장, 한국식품유통학회 수석부회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농촌진흥청 예산 심의위원,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특별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대·내외에서 대학과 지역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백승우 신임 회장은 "최근의 농업·농촌·식품산업은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과 농업 전후방산업, 식량위기와 먹거리 문제, 농촌개발과 고령화, 그리고 저출생 등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농식품 융복합 연구역량 강화와 농식품 산업 발전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올해 특성화고 미래역량강화 사업 추진

전북자치도교육청, 선도학교 12곳 · 일반학교 15곳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 특성화고 미래역량강화사업 선도학교 12개교를 선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김호항공고, 남원제일고, 덕암정보고, 원광보건고, 전북유니텍고, 전북하이텍고, 전주공고, 정읍제일고, 진경여고, 한국기술부사관고, 글로벌라이산고, 한국치즈과학고 등이다.

특성화고 미래역량강화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기술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사업이다. 이는 학교 여건에 맞는 목표 설정을 통해 학교 운영 전반의 혁신 기반 조성이 목적이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미래역량강화사업에 총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학과 특성 및 학교 규모, 사업 선정 심사 평가 점수에 따라 학교별로 차등 지원된다.

선정된 학교는 필수과제로 디지털 이해 교육과 디지털 융합 활용 수업, 교사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자율과제는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 운영하며, 디지털 교육여건과 학생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조성비도 지원된다.

선도학교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와 특성화고 15개교는 일반학교로 지정해 기술인재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특성화고 미래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지역맞춤형 기술인재 육성 및 교사의 디지털 수업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